

# 10년 뛰어다녀 청간해변 철책철거 성사

## 2001년 이장 · 2006년 군의원때도 추진 ... “권익위 · 22사단장님께 감사”

### 청간리 해변 경계용 철책 철거 앞장 김일천씨

“돌아해보면 청간리 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을 철거하기 위해 꼭 10년 동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 이렇게 성사가 되니 누구보다 기쁩니다.”

지난 13일 고성군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간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 현장 조정회의’에 주민 대표로 참가한 김일천씨는 이날 누구보다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1년에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됐습니다. 당시 청간리발 전협의회에서 정문헌 의원 등 각계 각층에 호소를 한 결과, 군비 4억원을 들여 군부대가 원하는 시설을 설치해주는 댓가로 철책을 철거하기로 했었죠.”

그러나 군부대측은 작전 관할이 정보사령부에서 22사단으로 이관됐다는 이유로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이후 2006년 고성군 의원에 당선된 뒤 청간정 일대에 산책로를 개설하면서 철책을 함께 없애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이 계획 역시 관련 부서의 안일한 대처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청간리 해변 철책 철거 문제는 흐지부지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고성군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한 김씨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청간리 주민 600여명 가운데 430명의 서명을 받아 이동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해 ‘40년만에 철책 철거’라는 큰 성과를 일궈냈다.

김씨는 그동안 마음을 모아준 지역 주민들과 민원해결을 위해 발로 뛰어준 권익위원회 관계자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22사단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사실 이곳이 A급 적 침투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텐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개방하기로 한 것은 사단장님의 큰 결단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김씨는 “청간리에는 5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청간정이 있고, 해변도 아름다워 해맞이와 여름 피서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며 “철책이 경관용 흰스로 교체되면 현재 연간 3~4천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두배 이상 늘 것으로 본다”고 했다.

청간리 해변 철책 철거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한 그는 요즘 한국리틀야구단 전지훈련장을 고성군에 유치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당초 속초시에서 유치하려했으나 장소 문제로 무산되면서, 속초시야구협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김씨에게 고성 유치를 의뢰



김일천씨(왼쪽)가 지난 13일 고성군청 3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과 함께 현장조정회의 합의문을 들어보고 있다.

한 것이다.

김씨는 “이처럼 좋은 아이템이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해보지도 않고 어려울 것 같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안타깝다”며 “고

성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보다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호 기자

## “젊음은 국가에 노년은 이웃에”

### 울곡전우회 흥성대씨 자원봉사자 ‘금장’ 수상



사진 가운데 꽃화분을 든 이가 흥성대 원사.

울곡전우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흥성대 원사(사진)가 지난 14일 속초시문화회관대강에서 열린 2011 속초시자원봉사자대회에서 속초시장 표창과 우수자원봉사자 칭호메달 ‘금장’을 받았다.

30여년이란 짧지 않은 군 생활을 22사단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흥원사는 전역 후에는 울곡전우회 회원과 자원봉사대원 고성과 속초에서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등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수여되는 ‘금장’을 받았으며, 평소 후배 부사관들에게도 모범을 보여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있다.

흥성대 원사는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 봉사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저보다도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상을 받게 돼 부끄럽지만,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상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받겠다”고 했다.백옥식 시민기자

## 선진농업기술 개발 고부가 농업 실현

### (주)참농원 김종호 대표, 창업활성화 유공 중소기업청장상

금강산관광 중단과 농업인의 소득감소로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한미 FTA까지 발효되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선진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는 업체가 있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위치한 농업전문 벤처기업인 (주)참농원(대표 김종호)이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1년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 창업대전에서 창업활성화 유공자로 선정돼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0년 5월에 설립해 현재 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참농원은 5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저비용 식물공장 및 고기능성 무농약 채소의 생산방법을 완료하고 기술평가 기술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을 인증 받았다. 또 세계최초로 식물공장 벤처사업인증도 받았다.

특히 고성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물공장산



채소 생산과 저비용 100% LED 식물공장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및 북유럽의 농업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확대해 식물공장 플랜트 수출 및 무농약 채소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농원 김종호 대표(사진)는 “이번 수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한 저노동, 고효율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농민소득 향상과 지역 고용창출 등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헌신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날로 악화되고 있는 농업환경과 한미 FTA 체결로 점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 현실에서, 지역경제에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한 농업부가가치 상승과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농업전문회사로서 기여하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